

1조원 투자유치 계약서 왜 숨기나?

/긴급점검/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투자

800 페이지 계약서 비공개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등은 지난달 9일 글로벌 투자그룹 '미래에셋자산투자'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미래에셋이 2029년까지 경도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해 '아시아 최고의 리조트'를 조성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책임 소재가 기재된 800페이지 분량의 계약서 비공개, 사업자 공모 과정의 불투명성, 지나치게 긴 투자 기간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광주일보에는 투자 협약의 문제점을 3차례에 걸쳐 집중 점검한다.

미래에셋 2년 최고 리조트 건설 전남도, 최대 투자유치 사업 관광객·일자리·경제 파급 등 검증 절차 없어 출발부터 불투명

전남도, 전남개발공사 등이 미래에셋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800페이지짜리 계약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광객 증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성장 등 지역 내외에 미칠 영향이 큰 '전남 최대 투자 유치'의 조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일보는 계약서의 원본 공개를 요청했으나 전남도 등은 '투자업체와의 비밀유지 준수 조항'을 이유로 거부했다. 계약서에 비밀준수 조항까지 있어 이를 어길 경우 상당한 규모의 위약금을 부담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경도의 매각과 관련된 계약서를 '봉인'한 것은 결국 전남도 등의 불리한 조건, 즉 독소조항을 숨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00페이지의 계약서는 본계약, 골프장·콘도 등 이미 완료된 개발부지 매매계약, 미개발 사업부지 양도양수계약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등이 계약서를 비공개하면서 지난 1월 9일 이낙연 전남지사, 양지문 전남개발공사 사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이 서명한 협약서만이 이들의 계약 내용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공식서류가 됐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위치도



협약서는 크게 4가지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조항은 사업명(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사업기간(2017.1~2029.12), 투자규모(1조원, 부지 및 기존 시설 인수비용 등 제반비용 포함) 등과 함께 투자 조건으로 연륙교 등 기반시설 지원을 명기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첫 번째 조항마저 전남도 등이 이행해야 할 투자 조건이 첨부돼 있는 것이다. "지역경제 발전 및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지역기업 및 지역인재 우선 고용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표현이 있지만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래에셋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없다.

하지만 두 번째 조항에서 "전남도, 여수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미래에셋그룹의 투자 이행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조성을 포함 '행정지원 협약서'에 기재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성실히 이행한다"고 적었다. 여기서 언급된 행정지원 협약서에는 논란이 된 연륙교 이외에 케이ابل 설치, 경도 주변 작은 섬 추가 개발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이 추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등과 미래에셋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은 세 번째 조항에 들어 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 편입, 카지노 등이 포함된 세계적인 수준의 복합리조트 조성 등 관련 사업 유치 및 육성을 약속했다.

문제는 경제자유구역 편입이나 카지노 허가 등의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이다. 또 구역 편입이나 카지노 허가 등의 책임 소재, 실패 시 대책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향후 마찰의 소지도 있다.

▶2면으로 계속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5·18 헬기사격 건물 1980년 5월 광주로 출격한 계엄군 헬기는 최소 3일간 시민을 향해 사격했던 것으로 광주일보 취재결과 파악됐다. 헬기 사격 증거와 증언은 5·18 시민군 최후의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 가톨릭센터(현 5·18기록관), 옛 광주은행 본점 건물(점선 표시 부분) 등 금남로 고층건물에 집중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함께 걸어요 통일 의 길
중곡구역 통역 탈북민 장순영씨 ▶18면
제52회 3·1마라톤 코스 ▶20면
3월 5일 문화전당 출발·8일 접수 마감

5·18 軍 헬기사격 최소 사흘간 쏘았다

목격자들 증언 잇따라

21일 금남로 등서 10여명 목격
24일 진월동 등 주택가에 사격
27일 새벽 도청 진압 때 난사

5·18 당시 광주로 출격한 계엄군 헬기는 최소 3일간 시민을 겨냥해 사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광주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감정 결과와 고 조비호 신부 등 10여명의 광주 시민 증언 그리고 미국인 목사 피터슨씨가 퍼낸 서적 등을 종합하면, 계엄군 헬기는 지난 1980년 5월 21일과 24일, 27일 광주 시민을 향해 사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27일 헬기 사격 관련해선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씨의 증언과 전일빌딩 총탄 흔적을 분석한 국과수가 헬기사격을 대비해 도청 마당에서 시민군을 배치하던 중 헬기가 날아들어 전일빌딩 옥상과 고층부를 몇 분간 난사했다. 국과수가 헬기사격으로 최근 결론내린 전일빌딩 10층 내부 탄흔도 그날 헬기 기총소사 흔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5일 광주일보에 증언했다.

정수만 전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내가 확보한 기록에 의하면 헬기사격은 80년 5월 24일에도 있었다"고 밝혔다.

광주 진월동에 살던 서박자(여·당시 42세)씨 진술에 따르면 "24일 오후 방안에 있다가 엄청난 총소리를 듣고 의식을 잃었고, 깨어보니 지붕 천장에 구멍이 뚫려 기왓장 틈으로 하늘이 보였다"는 것이다. 벽에도 수많은 총탄이 박혀있었다고 서씨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 증언했다. 같은 날 송암동 부근에서 숨진 초고 교사 송정조씨도 계엄군 헬기에서 총을 맞고 사망했다는 주민 진술이 있다고 정 전 회장은 밝혔다.

21일 헬기 사격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비호 신부 등 10여명의 광주시민, 피터슨 목사 등에서 "오후 1~3시 금남로 상공서 광주공원 방향으로 쏘았다"는 증언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사실상 받아들여야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정 전 유족회장은 "5·18 당시 거의 매일 헬기사격이 있었지만 최소 21일, 23일, 27일은 계엄군이 헬기를 동원해 시민을 향해 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청 앞 집단발포와 함께 헬기 사격은 광주시민을 상대로 벌인 계엄군의 무차별 살상 행위와 잔학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국민의당 중심 제3지대 '급물살' 타나

손학규와 통합 끝내기 수순

경선률·정운찬 의견 최대 반영

국민의당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국민주권개혁회의 간의 통합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손 의장은 주말인 지난 4일 오전 회동을 하고, 두 시간 정도 통합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 모두 "구구한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합의 타결을 위한 막판 끝내기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통합 협상의 세부 사항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2월 중순께 양측 간 통합이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

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탄력을 받은 '제3지대' 발(發)정계개편 논의가 가시적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두 사람의 회동 후 손 의장 측의 이찬열 의원은 기자들에게 "손 의장이 회동에서 '구구한 통합 조건을 내세우고 싶지 않다'면서 '다만 통합의 명분을 살리는 방안을 국민의당이 고민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언급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의장 측 관계자는 5일 "손 의장이 마음을 비운 상황에서 통합 형식에 대해 국민의당이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지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당은 손 의장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의 연대에 대비,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경선률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0-YEAR
Ginseng Research

Sulwhasoo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우는 인삼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천천히 변화를 겪는 피부는 어느 순간 크게 힘을 잃습니다
피부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전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 꽃의 응축된 힘으로 방어력을 강화해 피부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인삼 뿌리의 강력한 효능 성분으로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더욱 강화된 인삼결정제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세요

· 1966년 설화수 브랜드의 모태인 ABC인삼크림이 탄생되었으며, 이후로 50년간 인삼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유명백화점이나 이모세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시 요금부담)